

# 日本の初等學校 餘裕教室の轉用과 韓國의 遊休教室 活用 事例에 대한 研究

## A Case Study on the Utilization of Unused Classrooms Between Japanese and Korean Primary Schools

金承根\*      鄭鎮周\*\*      崔孝昇\*\*\*

Kim, Seung-Geun,    Jung, Jin-Ju,    Choi, Hyo-Seung

### Abstract

This study aims at revealing utilization planning by surveying and analyzing unused classrooms of primary schools' facilities between Japan and Korean. Focused on high and multi-functionization, rather qualitative aspect than quantitative. Various and positive utilization planning of unused classrooms are needed. In Japan, unused classrooms of primary schools have already appeared in urban and rural area together. However it has been presented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these facilities even though many schools have tried using those.

With these circumstances, Educational Authorities in Japan have researched the utilization methods of these facilities to use as supporting facilities for school education, management and opening to regional communities. Also, they are promoting to refer each school to a guide handbook for unused classrooms. Therefore, this study with some cases between Japan and Korean should be valuable data for effective use and planning of our cases.

키워드 : 유휴교실, 일본과 한국, 활용사례

Key words : unused classroom, Japan and Korea, cases of utilization

### 1. 서론

일본에서도 이미 도시 및 농어촌지역 등의 초등학교에 여유교실이 등장하면서, 학습지원을 위한 시설이나 각 학교별 특성에 요구되는 시설로의 확충 등, 각 급 학교의 자체적인 노력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효과적인 활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려운 점이 나타났다. 또한 일본 문부성은 초등학교 여유교실의 학습공간으로 이용, 지역사회시설로서의 이용 등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해 왔고, 이용기준에 대한 지침을 각급 학교에 보내 참고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일본의 여유교실<sup>1)</sup>은 그 발생 배경과 규모, 성격상 우리 나라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의 사례를 통한 연구<sup>2)</sup>는 결국 도심 및 농촌지역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 정희원, 극동정보대학 건축과 조교수  
\*\* 정희원, 청주대학교 건축공학부 박사과정  
\*\*\* 정희원, 청주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1) 일본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교실을 '여유교실'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유교실'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경우 그대로 '여유교실'로 사용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휴교실'로 용어를 재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2) 일본의 여유교실 전용사례에 대한 연구는 1999년 일본 문부성에서 제작한 '餘裕教室의轉用, 學校教育以外の施設の轉用'이라는 책을 기초로 진행하였으며 실제의 현장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 富勢(도미세)중학교 鈴木 博(스즈키 히로시)교감 선생님과 전용사례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일부 자료는 일본 문부성 홈페이지의 <http://www.monbu.go.jp/news>를 참조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한국의 유휴교실 활용사례에 대한 연구는 충북에 위치한 전체 초등학교 중에서 50개의 학교를 선정하여 활용실태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기초로 이루어졌다.

많은 유휴교실의 적절한 이용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자료로서 가치를 가질 것으로 사료된다.

2. 일본 초등학교 여유교실의 주변 상황 및 전용사례<sup>3)</sup>

2.1 여유교실의 주변 상황

일본 문부성에서는 1993년부터 여유교실의 적극적인 이용을 추진하고 학교시설의 고기능화·다기능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①관계부처 공동에 의한 「여유교실이용지침」의 작성, ②커뮤니티·스쿨 정비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학교의 복합시설로서는 도서관, 커뮤니티시설 등의 교육시설이 중심이 되어 왔으나 최근에 와서는 사회복지시설, 방재시설 등이 필수 지역시설화 되고, 이에 따라 학교의 여유교실을 이러한 시설의 설치 장소로 이용하자는 사회적 요망이 높아지고 있다.<sup>4)</sup>

(1) 사회적 요청

① 사회복지시설로의 요청

일본의 학교시설도 기본적으로 학교교육의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최근 산아수 저하로 인하여 학급수가 감소하는 사회적 상황 때문에 전국적으로 여유교실이 증가하는 상황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여유교실은 정보화·다양화에 대응하는 학습공간(학교교육을 지원하는 기능)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빠른 속도로 발생하는 여유교실을 모두 이의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의 일환으로 향후 여유가 예상되는 교실은 학교교육 이외의 기능으로 적용하자는 사회적 요청이 일게 되었다.

● 고령자 복지시설

일본의 인구구조는 출생률의 현저한 저하와 장수화의 요인으로 고령자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65세 이상의 인구가 1950년의 411만명에서 1995년의 1,826만명으로 4.4배 이상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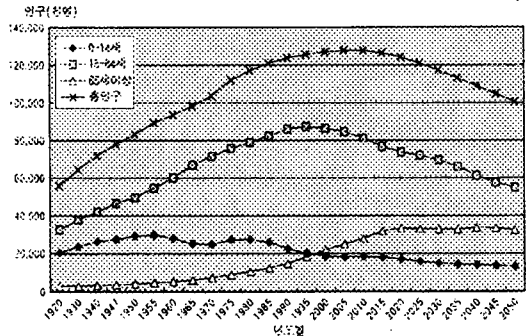


그림 2-1. 연령(3구분)별 인구추이와 장래추계

자료: 餘裕教室の轉用, 學校教育以外の 施設の轉用, 文部省, 日本, 1999. p.3

앞으로도 고령자의 현저한 증가의 예상으로 데이서비스센터, 노인보건시설, 케어하우스 등 고령자복지시설 증가는 자연적으로 요구되지만 이러한 시설들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현재 일본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맞추어 이와 같은 시설의 설치를 위해 도심부에 적합한 장소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지방공공단체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유교실을 가진 공립 소·중학교시설의 이용을 검토하고 실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 아동복지시설

일본의 출생률은 최근 급속하게 저하하고 있으며, 1997년의 합계특수출생률(1인의 여성이 한 생애에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의 수치)은, 현재 일본의 적정 인구규모를 장래에 유지

3) 세계적으로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나라에 속하는 일본의 인구분포 및 지속적인 출산율의 저하, 고령자·미취학 아동·장애자를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 및 사회적 요청, 지진과 같은 재난에 대비하는 시설 등 일본의 특수한 사회적·지리적 상황 및 변화는 여유교실의 활용·전용 사례에서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 인구의 감소 및 이동 등의 사회적 상황에 의해 발생한 일본의 여유교실은 우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 발생 속도 및 활용사례는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상황 등에 따라 일본은 이미 학교시설로의 활용을 모색하는 단계를 지나 학교시설 이외의 용도로 전용(轉用)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는 반면에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학교교육을 위한 시설로의 활용에도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어떠한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두 대상을 수평적으로 상호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일본의 선(先) 경험을 참고하겠다는 의도로 연구를 진행하였음.

4) 「생활대국5개년계획」(1992년 6월 30일)에서, 학교의 생애학습기관으로서 학습기능을 충실·강화하는 것이 결정되었고, 생애학습심의회의 「금후의 사회의 동향에 대응한 생애학습의 진흥대책에 관하여(1991년 10월 29일)」에서, 지역의 학습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관점에서 학교시설만들기를 추진하자는 것이 제안되었다.

하는 데 필요한 2.08명을 크게 밑도는 1.39명이며, 그 원인은 만혼화(晩婚化)나 미혼률(未婚率)의 상승 등에서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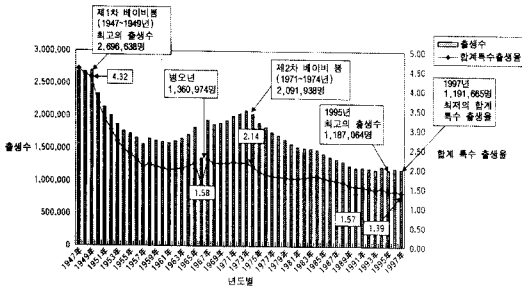


그림 2-2. 출생수 및 합계특수출산률의 추이

자료: 餘裕教室의 轉用, 學校教育以外の 施設의 轉用, 文部省, 日本, 1999. p.5



그림 2-3. 일본의 여유교실 시설 전용사례

자료: 餘裕教室의 轉用, 學校教育以外の 施設의 轉用, 文部省, 日本, 1999. pp.2~162

낮은 수치의 자녀화도 고령화와 같이 사회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자녀(학생) 자신도 다양한 동료와의 접촉의 기회가 적어지고, 인내력 배양 부족 등 학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생활 참여가 어려워 진다는 지적도 있다. 부모들도 자녀양육의 경험이 부족하고, 부모의 과보호도 발생할 수 있어 자녀의 건강한 성장으로 걱정이 일본 사회 각층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여러 지역에 설치된 자녀양육 지원시

설로 보육소, 아동관 등을 들 수 있는 데, 특히 1995년부터 부모의 취업으로 주간에 혼자 가정에 있을 수 없는 10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수업 종료후 아동후생시설등을 이용하여 놀이 및 생활 장소를 부여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보육 대책 등 5개년 사업이 보다 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은 아동관, 보육소, 학교의 여유교실, 공동주택 단지의 집회실 등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장애인 복지시설

일본은 장애인 대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장애인플랜(Normalization: 정상화) 7개년 계획을 제정하였다. 정상화의 사고방식은 장애가 있는 사람도 정상인과 동일한 지역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며, 장애자를 정상인으로 취급하는 사고의 전환이라는 전제하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특별히 취급하지 않고, 가정이나 지역에서 공동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사회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 맞추어 각 지역에서 장애인들의 자립이나 생활지원을 위한 시설로 그룹홈이나 복지홈 등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의 여유교실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② 지역방재시설로의 요청

일본 정부는 1978년 대규모 지진대책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고, 그 후 계속적으로 일본의 학교는 각 지역에 있어서 중요한 방재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로 강조되어 왔다. 아동·학생이 학교에 있는 사이에 재해가 발생한다면 안전하게 귀가할 때까지 학교는 아동·학생을 보호하여야 하며, 또한 지역 주민의 대피시설로 재해가 발생한 기간동안 식료, 침구, 방재용 기재 등을 비축해 두는 기능을 담당하는 일이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한신·담로대지진의 경험에서 지역주민의 방재용 물품 비축을 위한 대규모 시설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청에 학교의 여유교실이 방재용 창고로서 활용이 검토되고 있다.

(2) 여유교실의 현황

일본의 총인구가 출생률의 저하와 장수화에 의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조금 증가하는 반면에 학령인구는 매년 감소를 보이고 있다. 학교의 아동수는 1981년의 1,192만명, 1997년에는 774만명으로 무려 35%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소(초등)학교에서는 41.617학급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보통교실수의 기초가 되는 학급수의 감소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일본의 여유교실의 수는 57,197 실로 보통교실수의 11.2%까지 차지하게 되었다.<sup>5)</sup>

(3) 학교를 둘러싼 상황

일본의 교육계와 사회는 「교육제도의 혁신과 풍부한 인간성의 육성」, 「사회적 요청의 변화에 빠른 대응」, 「학교와 사회의 적극적인 제휴」 등 현재 우선적으로 대처해야할 교육상 과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최근 공립중학교 학생들에 의한 수 차례의 연속적인 사고의 발생으로 「마음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여러 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요청의 변화에 빠른 대응」과 관련해 유치원, 소학교단계에서부터 노인(고령자)과 서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이나, 학교와 고령자시설의 제휴 등, 고령자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자녀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고령자와 관계 맺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시설과 고령자복지시설의 복합화 방법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각 지역에 학교의 여유교실을 이용하여 학교내의 자녀들과 고령자가 만나는 열린 장소를 확보하고 「학교 및 학습 지원 벌런티어」로서 협력해 줄 수 있는 고령자를 모집해 이러한 방법을 시행<sup>6)</sup>하고 있다.

2.2 여유교실의 전용사례

(1) 여유교실 전용의 개요

일본의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처음부터 지역사회의 핵으로 여러 가지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학교시설에서 많은 문화활동이나 사회교육의 활동이 왕성하게 행해지고 주민교류의 장으로 사용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연대감이 희박해 지는

경향도 막을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배경으로 학교시설에 여유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학교교육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가 요망하고 있는 시설로써 이용<sup>7)</sup>하는 것은 사회자본의 활용 관점에서도 중요한 일이었다.

1997년 공립 소, 중학교의 여유교실에 관한 조사 결과, 1993년 이후 학교시설이외의 전용시설은 563시설에 달하고 그 교실수(특별교실 74교실을 포함)는 861교실이었다.

전용시설수가 가장 많았던 것은, 방과후 아동클럽(320시설)으로 일반적으로 소학교의 여유교실을 전용하였고, 방재용 비축창고(119시설), 사회교육시설(82시설)이 그 다음 비율로 나타났으며, 노인복지시설(15시설), 장애인 복지시설(1시설)등은 전용사례가 낮게 나타났지만 향후 전용보고서를 제출한 학교의 실적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2-2. 여유교실 전용시설의 종류

전용시설명	시설수	비율(%)
방과후 아동클럽	320	56.8
방재용 비축창고	119	21.1
사회교육시설	82	14.6
이외의 문교시설	10	1.8
노인서비스센터	10	1.8
행정기관	6	1.1
집회소등	5	0.9
아동관	3	0.5
재택간호지원센터	2	0.4
그외 고령자 복지시설	2	0.4
정신장애자사회복지시설	1	0.2
그외 사회복지시설	1	0.2
보육소	1	0.2
노인복지센터	1	0.2
계	56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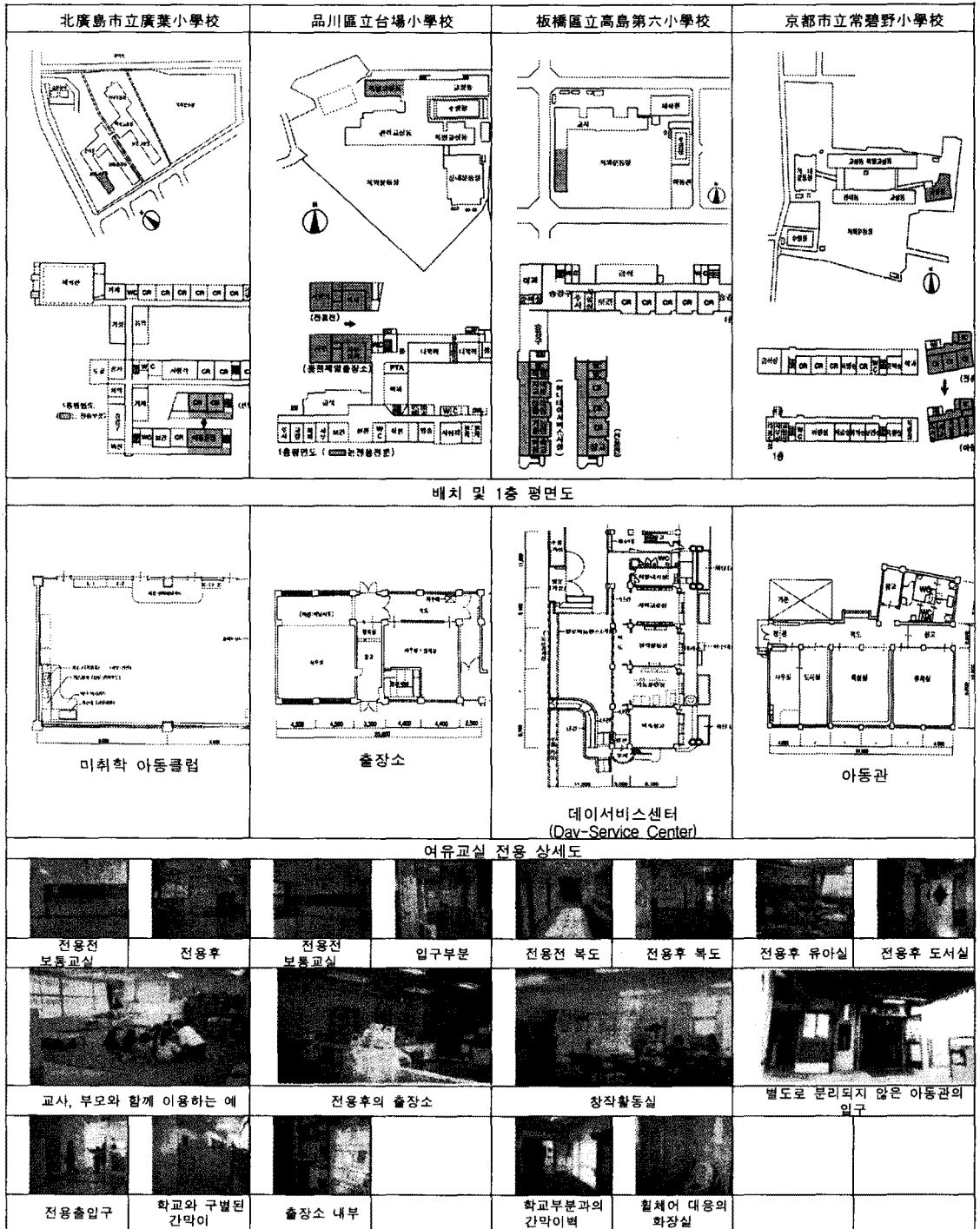
자료: 餘裕教室の轉用, 學校教育以外の 施設の轉用, 文部省, 日本, 1999. pp.76~79

5) 餘裕教室の轉用, 學校教育以外の 施設の轉用, 文部省, 日本, 1999. pp.8~10

6) 학교는 지역사회의 테두리 속에서 자녀들이 다른 세대의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많은 체험을 쌓아가면서 학습을 해 나가는 장소이지만, 도시화나 과밀화 등으로 고령자와 일상적인 만남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로부터의 활동(벌런티어제도)에,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참가시켜 각종 사회활동의 정보를 학교나 지역사회로부터 제공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7) 국고보조금을 받은 학교시설을 교육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문부성 승인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도 있으나, 1997년에 보조금 등에 관계하는 예산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 재산처분의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학교의 여유교실을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전용하는 것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간략히 대체되어 여유교실의 활용에 있어 각 학교 및 지역 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었다.





자료: 餘裕教室의 轉用, 學校教育以外の 施設の 轉用, 文部省, 日本, 1999, pp.98~157

그림 2-4. 여유교실 전용 사례 현황

전용시설이 위치한 지역은, 주택지에 있는 학교가 가장 많았고(400교), 상업지(30교), 공업지(22교), 도시계획구역외(8교)는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학교와 전용시설과의 상호의 시설 이용에 있어서는, 상호 보완적인 이용이 바람직한 경우이지만, 실제로는 상호이용하고 있지 않은(319교)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전용시설이 학교시설을 이용(178교)하거나, 학교시설이 전용시설을 이용(21교)하거나, 양쪽의 시설이 상호 이용하고 있는(37교) 사례도 많이 나타났다.<sup>8)</sup>

(2) 여유교실의 전용사례

여유교실을 전용하는 사례로 北廣島市立廣葉小學校(미취학 아동을 위한 클럽), 品川區立台場小學校(출장소), 板橋區立高島第六小學校(고령자를 위한 테이서비스센터), 京都市立常碧野小學校(전용 아동관)의 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용의 경위와 전용시설의 내용 및 전용시설과 학교시설 또는 지역주민과의 교류활동, 시설계획상의 고려사항, 관리상의 고려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표2-2>와 같이 정리하였고, 전용사례의 상세 도면 및 현황은 <그림2-4>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위 4개 학교의 사례들은 모두 학교교육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이 아닌 학교교육 이외의 시설로 전용되고 있는 것들이다. 향후 우리나라 유휴교실의 활용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현재의 실정에서는 완벽히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일본의 여유교실은 발생배경과 규모, 성격상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으나, 일본은 우선적으로 학교교육을 위한 시설로 여유교실의 활용을 시도해 보고, 그래도 남는 교실들에 대해서 지역주민 및 단체, 행정당국과 연계해서 이와 같은 시설로 완전히 용도를 바꾸어 전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실정에도 향후 이러한 시설들의 부족이 예상(특히, 한정된 부지상의 조건으로 도심부에 적용가능성이 높다) 되는 일이므로 적용가능성은 있다 하겠다.

3. 우리나라 초등학교 유휴교실의 활용사례

3.1 유휴교실의 구분<sup>9)</sup>

학생수 및 학급수의 감소로 남게 되는 학교의 유휴교실은 우선적으로 일반교실의 변동상황과 관련해서 고려하여야 한다. 이용되지 않는 일반교실은 학교의 특성에 맞게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기존의 특별교실의 규모를 확대하던가, 이용하지 않고 유휴교실로 남아 있게 된다.<sup>10)</sup> 또한 기존의 교과과정에 따른 학교 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던 여러 기능의 실들로 교과과정의 변화에 의한 필요실로 요구되어 유휴교실이 활용되기도 한다.

표 3-1. 유휴교실의 의미

용어	정의
유휴교실	지역적·경제적·학교경영상 등의 이유로 학생수의 증가가 어려워 향후 영구적으로 여유가 된다고 보는 일반교실
한시적 유휴교실	현재는 일반교실로서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장래 학급수의 증가, 매 학년의 학급수의 변동, 그 밖의 다른 이유에 의해 특정용도 목적으로 개조되지 않고 사용을 보류하고 기타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일반교실
빈 교실	유휴교실중 장래계획은 없고 당해 학교에서는 불필요하다고 보는 일반교실(향후 교실의 재배치후 필요에 따라 철거 가능한 교실)

일반적으로 각급 학교에서는 폐지된 「교육부 시설·설비기준령」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기준 시설만 확보하거나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을 뿐 새로운 교과과정이나 교수방법에 필요한 시설들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sup>11)</sup> 교실이 남게 되면 유치원을 확보하고, 과학실을 확대하고, 예절실을 만드는 등, 무계획적인 이용(남는 교실 채워 넣기 식의)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유휴

8) 餘裕教室의 轉用, 學校教育以外の 施設の 轉用, 文部省, 日本, 1999. pp.76~89

9) 서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교실을 일반적으로 '여유교실'이라는 용어를 일본과 마찬가지로 사용한다. 연구자에 따라서 해석하는 관점이 다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남아 있는 의미의 '여유'가 아닌 향후 다시 사용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유휴'란 용어를 사용하여 해석하였다(표3-1 참조).

10) 김승근, 정진주, 최효승, 도심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 실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8, 제 14권, 9호(통권119호)

11) 각 학교와 교육당국에서는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교실들은 없다고 보고 있다. 이는 어떠한 용도로도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실제로 유휴교실이 없다고 보고 있다.

교실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보았다. '유휴교실'은 학급수의 감소로 이용하지 않거나 또는 97년 9월 폐지된 「교육부시설·설비기준령」에 의하여 갖추어진 일반 관리교실 및 특별교실, 각 학급에 지정된 1개의 일반교실<sup>12)</sup>을 제외한 현재 기타의 용도로 이용하는 교실(앞으로도 여유가 된다고 보는 일반교실)들을 그 범위로 보았고, 이용되지 않는 일반교실들을 표 3-1과 같이 유휴교실·한시적 유휴교실·빈 교실로 구분하였다.<sup>13)</sup>

### 3.2 충청북도 초등학교의 변화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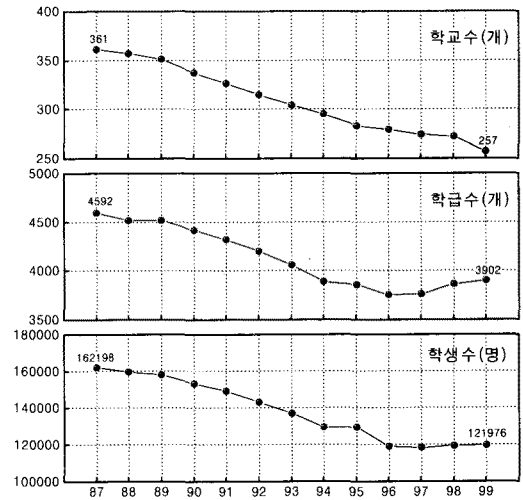
전국적으로 이미 많은 유휴교실이 나타난 초등학교들이 있으나 본 비교 연구에서는 충청북도에 위치한 257개 초등학교들 중에서 50개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유휴교실의 현황을 조사하였다<sup>14)</sup>.

표 3-2. 1999년 충청북도 초등학교 현황

구 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총 계	257	3,902	121,976	4,914
청주시	41	1,369	53,406	1,573
충주시	38	562	18,142	709
제천시	23	355	11,578	443
청원군	35	331	7,956	456
보은군	17	159	2,912	217
옥천군	14	156	3,979	209
영동군	19	162	3,885	223
진천군	15	189	4,795	245
괴산군	22	227	5,473	309
음성군	22	258	7,044	354
단양군	11	134	2,806	176

자료: 충청북도 교육청, '99. 4. 1. 기준

- 12) 과거의 학교유형은 학교수업방식에 의한 분류 기준에 의거 대부분 일반교실형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위의 정의를 적용해 분석하는 것에 무리가 따르지 않았으나, 현재의 많은 초등학교의 저학년부는 열린교육을 위한 오픈 교실로 변경되고 있어 유휴교실을 산출함에 있어 일반교실형의 구분에 의한 일괄적 기준 적용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사실이다.
- 13) 이상과 같은 분류는 일본에서 구분하고 있는 여유교실의 분류를 참조하여 우리의 현황에 맞도록 적용하였다.
- 14) 현재는 충북 지역(3개시, 8개군의 도심 및 농촌 지역 대상)에 위치한 257개의 초등학교 중에서 5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그 상호 비교가 완전하다고 할 수 없겠으나, 향후 각 지역별로 상이한 특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유휴교실을 전국적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 학교개황, 교육통계편람, 1987-1999

그림 3.1 충청북도 초등학교의 변화현황

충청북도내 초등학교 수의 변화과정을 표3-2, 그림 3-1에서 살펴보면, 1987년 361개교에서 점차 감소하여 1999년에는 257개교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학급수도 1987년 4592개에서 1999년 3902개 학급으로 감소하였으며, 학생수는 1987년 162,198명에서 1997년 118,224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98년 이후 소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3. 충청북도 초등학교 학생 및 학급수 증감률

구 분	학 생 수			학 급 수		
	1989	1999	증감율 (%)	1987	1999	증감율 (%)
청주시	47,122	53,406	113.3	955	1,367	143.1
충주시	14,180	18,142	127.9	330	562	170.3
제천시	11,927	11,578	97.1	276	355	128.6
청원군	14,272	7,956	55.7	479	331	69.1
보은군	7,014	2,912	41.5	269	159	59.1
옥천군	8,745	3,979	45.5	279	156	56.0
영동군	8,257	3,885	47.1	288	162	56.3
진천군	6,190	4,795	77.5	201	169	84.0
괴산군	10,707	5,473	51.1	368	227	61.7
음성군	9,060	7,044	77.7	281	258	91.8
단양군	7,478	2,806	37.5	262	134	51.1

주) 자료: 교육행정요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1989-1999



충청북도 각 시군의 초등학교들 중에서 1989년부터 1999년까지 10년간 청주시(학생수 : 113.3%, 학급수 : 143.1%)와 충주시(학생수 : 127.9%, 학급수 : 170.3 %, 증원군 포함 산출)의 경우에서만 학생수와 학급수가 증가하였고, 제천시(제원군 포함 산출)는 학생수는 97.1%로 감소하였지만, 반면에 학급수는 128.6 %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 지역과 비교해 군 지역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표3-3에서와 같이 각 시군 중에서 보은군(학생수 : 41.5%, 학급수 : 59.1%) 단양군(학생수 : 37.5%, 학급수 : 51.1%)의 감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옥천군, 영동군이 비슷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고찰을 통해 충청북도 초등학교 학급수 및 학생수의 시지역과 군지역간의 격차는 일반화될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학급수·학생수의 감소로 유휴교실이 증가해 왔고, 최근 10년 사이에 그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유휴교실의 발생을 가져 왔고, 또한 지역적으로 분교, 폐교 등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 3.3 유휴교실의 활용현황

조사대상 학교들은 대부분 그림 3-1에서와 같이 학급수 감소에 따른 10여년간 점차적으로 유휴교실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일부의 학교를 제외하고는 그 유휴교실의 효과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표 3-4. 유휴교실 활용공간의 분류

구 분	시설 분류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시설	다목적실, 도서실, 시청각실, 어학실(영어교육실) 등
학생의 생활·교류를 위한 시설	휴게실, 식당, 탈의실, 샤워실, 전시실, 전통 예절실 등
수업 준비 및 관리를 위한 시설	교사연구실, 교사회의실, 자료보관실, 자료제작실 등
학교개방을 위한 시설	체육관, 강당, 유치원 등

조사 대상학교를 학교의 요람에 의거한 시설

기준을 바탕으로 현장 실태 조사하여, 폐지되기 이전의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의해 관리행정 시설, 보건위생시설, 부속시설, 특별교실 및 일반교실, 권장시설(기타 지원시설)등으로 구분<sup>15)</sup>하여 표 3-4와 같은 네 그룹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류를 바탕으로 유휴교실의 활용 현황을 표 3-5 에서 각 시설별 특징을, 그림 3-2에서 세부 시설별 활용 평면을 정리하였다.

첫째,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컴퓨터실 등 기존 특별교실의 확대 운영과, 다양한 학습 및 지도방법에 대응하여 활용하려고 하는 다목적실, 도서실, 시청각실, 어학실(영어교육실) 등의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시설이 나타났다. 둘째, 학생들이 생활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생활공간으로서 요구되는 휴게실, 식당, 탈의실, 샤워실 등과 학교별 특성에 따라 각종 전시실이나 전통 예절실 들도 나타나는 데 이는 학생의 생활·교류를 지원하는 시설로 분류된다. 셋째, 교사의 연구공간 및 자료 보관실, 자료 제작실, 교무실의 확대 등 수업준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이 나타났다. 넷째,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시설로 체육관, 강당, 유치원 등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6은 조사대상학교의 규모별 유휴교실의 활용실태 현황이다. 유치원은 45실 규모로 거의 모든 학교에서 활용중임을 알 수 있으며, 영어자료실, 영어교실, 어학실, 영어방 등 23실을 확보 운영중이다. 도서실, 학습정보센터 또는 예절실도 20% 이상의 학교에서 확보해 활용중이다. 평생교육실, 특활실, 교육실, 학교운영계획에 의한 놀이방, 역사실(관), 취미교실, 예능실, 서예실, 실험실 등의 학교별 중점교육목표에 의거한 실들도 그 활용 비율이 20%를 넘고 있다.

이에 비해 운영회의실, 상담실 등은 활용이 미비하며, 다목적실은 2학교에만 효과적으로 활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각급 학교 유휴교실의 활용시 이와 같은 시설의 확보 및 이용가능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15) 김승근, 충북 초등학교의 유휴교실 이용실태조사, 대한건축학회 충북지회학술발표집, 2000. 3. p.18

표 3-5. 유휴교실의 활용현황 (시/군-대상학교)

구분	활용현황	활용사례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시설	다목적실	① 주로 간단한 행사 및 조회를 할 수 있는 소규모 강당, 실내 체육실(탁구장) 등으로 다목적실이 활용되지만 단순히 강당의 대용이나 체육실로 사용되는 것이외는 다양한 학습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없었음. ② 학예발표회 및 행사가 열리는 장소로 사용되거나 또한 지역주민에게 결혼식, 회갑잔치 등으로 개방한 사례도 나타난다. ③ 주로 교실 2개 또는 3개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			
	도서실	① 1실(또는 0.5실)을 이용하여 단순히 독서실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성하거나, 자료실과 도서실로, 휴게실과 도서실로 혼용되어 활용. ② 일부의 학교에서는 도서관을 방과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도 나타났으나, 대개의 경우 도난의 이유로 도서실을 개방하지 않고 있음. ③ 컴퓨터실, 정보자료실 등과의 효과적인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컴퓨터실	① 컴퓨터실은 모든 학교별 각 1~4개 교실을 확보하여 운영. ② 일부의 학교에서는 학생컴퓨터실, 코너컴퓨터스페이스, 교사컴퓨터교육실, 지하학년·고학년컴퓨터실, 랜구축실(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실 등으로 세분하여 4.5개실의 규모로 학교별 집중 교육목표에 의거하여 활용.			
	시청각실 어학실	① 시청각수업을 하기 위한 전용실을 확보하거나, 영어교육을 유휴교실을 활용한 경우, 별도의 어학실(Lab실)을 확보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나타났음. ② 시청각실의 기재재를 위한 준비실을 구성한 경우와 규모가 작은 초등학교에서는 시청각실을 정보 자료실과 공유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③ 영어교육실과 컴퓨터실을 연계한 교육실의 사례도 조사되었다.			
	특별교실	① 일부 학교에서는 특수공작실 1실, 기초공작실 1실, 발명실현실 1실, 발명정보실 1실, 총 4실의 과학실을 운영하고 있어 특성화된 특별교실로의 활용. ② 음악실을 국악합주실과 양악합주실 각 1실 규모로 총 2실을 확보 운영하는 경우와 전통악기연주실 1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나타났다.			
학생-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휴게실	① 교사내부에서 유휴교실을 휴게실로 이용한 사례는 극히 미비. ② 대개의 경우 건물 양단의 코너 부분에 소파를 준비하고 바닥에 카펫 마감을 하여 사용하고 있다.			
	식당 급식실	① 복도쪽의 벽을 철거하여 그 규모를 확장한 3-4개 교실을 식당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와 별도의 건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주로 나타났다. ② 학교에 유휴교실이 남아 있어도 식당을 신축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③ 필요시에 학생들이 모여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활용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예절실	① 많은 학교에서 유휴교실이 발생하면 전통실·예절실로 전환하고 있으며, 특히, 인성교육 및 전통교육을 학교의 중점적인 교육 목표로 삼고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예절실을 학교의 중점교육목표에 대응하는 특별실로 활용. ② 지역의 역사, 민속 등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고 사회와 학습시설과 교재로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통관(전시관)을 확보 활용.			
수업준비를 지원하는 시설	자료실	① 교재·교구를 수납하기 위한 단순한 자료실로의 이용과 시청각자료실로의 이용, 또는 자료실과 전시실이 혼용된 경우로 나타나고 있다. ② 교사가 교재를 연구하고 작성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은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았다.			
	상담실 교사 연구 (회의)실	① 교장실을 상담실로 겸용하고 있거나 별도의 0.5실이나 1실 규모의 소규모 상담실 및 성교육상담실을 확보 운영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② 교직원 회의의 장소로서 별도의 회의실을 설치한 사례는 미비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교무실의 공간을 그대로 교무회의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교사 연구실도 학년별 또는 교과별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는 미비하였으며, 일반적으로 회의실과 마찬가지로 교무실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유치원	① 취약전 아동들에 대한 사전 교육 단계로서 유치원 시설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청은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유치원 시설로의 전용을 가져왔으며,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유치원 시설을 확보.			
학교개방을 위한 시설	강당	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시설의 개방이 야기될 수 있는 관리상의 불편 때문에 개방을 기피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 편의 요점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강당 시설을 개방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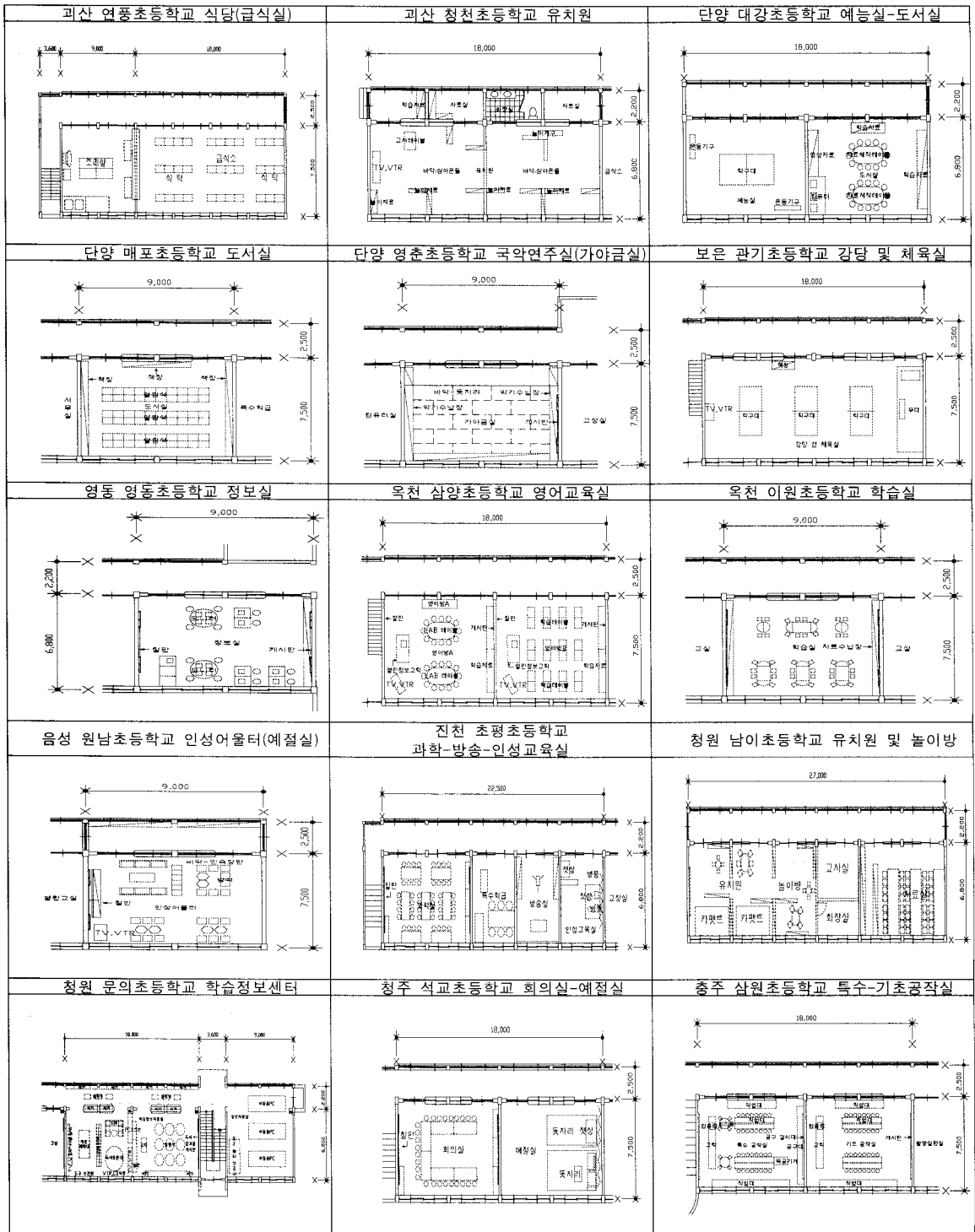


그림 3-2. 유휴교실 활용 사례 현황

표 3-6. 규모별 유휴교실 활용실태 현황

구분 / 규모(실)	0.5	1	1.5	2	3	4	5	기타	계
유치원		7	5	24	5	4		1.5인 경우 교실+복도	45
방송실	3	11							14
양호실	33	6	1						40
영어자료실, 영어교실, 어학실, 영어방	2	16		5					23
급식실				8	5	1	4	3(6실,6실+ 복도,8실) 복도포함	43
자료(과학/일반)실 제작실, 자료제작실	5	9	2						16
도서관, 학습정보 센터	2	20	1	1				1 (3실+복도)	25
정보자료실, 인터넷실	5	5	1						11
화장실	3	6	1	1					11
특수학급	5	14	1					1(6실)	21
예절실	2	11	1		1			1(급식실과 겸용)	15
체육실/강당, 운동관, 탁구실		6		6					12
학교운영회실, 회의실, 청소년단체실	3	5							8
다목적실				1	1				2
평생교육실, 특별실, 교육실, 역사실(관), 학교운영목표에 의한 실, 취미교실, 예능실, 서예실, 실험실		8		4					12
열린교육을 위한 학습실, 준비실	2	1			1		1		5
폐실, 창고	2	1					1	1	5

4. 결론

본 연구에서 조사한 일본의 전용사례는 우리나라의 활용사례와 시기적 측면과 접근방식에서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여유교실 전용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여유교실을 학교교육 및 학생의 생활지원을 위한 여러 시설로의 활용을 시도하는 단계는 지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그 이후로도 추가로 남게 되는 여유교실을 사회적, 지역적 요구에 부응시키며 학교와 기관의 협조하에 고령자, 미취학아동, 장애자, 또는 지역방재시설, 공공기관에의 임대 등으로 전혀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시기에 이르렀다.

이와 비교해 우리 나라에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유휴교실의 규모도 아직 정확히 산출되어 있지 않거나,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시설이 부족하며 유휴교실은 없다고 판단하는 관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농촌뿐만 아니라 도심지역에서도 폐교되는 학교가 빠르게 증가해 온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 나라에서도 사회적·지역적·경제적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향후 유휴교실의 증가와 이의 활용은 주목해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되며, 또한 시기적으로 일본의 여유교실 전용과 같은 사례도 우리가 미리 참고해야 될 것이라고 보며, 또한 앞으로 우리 나라의 유휴교실 활용에 대해, 조사된 현재의 이용실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시설

- (1) 다양한 학습내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모별(소·중·대)로 일반교실을 구분 활용한다.
- (2) 음악실(합창/합주/준비실), 미술실(회화실/조형실/준비실), 과학실(화학/생물, 물리, 준비실), 컴퓨터실(실습실,관리실(교사준비실),인터넷pc실) 등 기존의 특별교실을 확대 활용한다.
- (3) 식당이나 체육시설 등으로 겸용 가능하고, 개별학습, 집회, 공연, 강연 및 세미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을 구성한다.
- (4) 준비실(교사대기실 겸용)을 포함하여 시청각실, 어학실(영어교육실)로 활용하며, 확장성과 지역사회 개방을 고려한 도서관로의 활용을 고려한다.
- (5) 각 학교별 중점교육사항을 수립한 교육계획에 의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절실, 전통실, 전시실, 통일실 등으로 학교별 특성(지역별 특색)에 맞는 특별교실을 개발하여 유휴교실을 활용한다.

둘째, 학생의 생활·교류를 지원하는 시설

- (1) 식당(급식실)은 다목적실과 겸용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2) 보통교실, 특별교실 등의 학습공간과의 사이에 이동이 쉽고, 교류, 휴식 등의 장소로, 일반교실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교사 양단의 코너 부분을 활용하여 휴게실

을 고려한다.

셋째, 수업준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

- (1) 도서실, 정보실, 시청각실과 연계성을 갖도록 학년별, 교과별로 구분한 자료실로의 활용을 고려한다.
- (2) 교육상담실, 교과지도실, 성교육상담실 등으로의 활용과 교사연구실, 교사회의실, 교무실의 개선 등 관리실로의 활용을 고려한다.

넷째,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시설

학교의 운동시설과 특별교실 등을 이용하여 지역의 체육활동, 문화활동 등의 지역사회시설로 활용되도록 하고, 고령자, 심신장애자 등의 이용을 고려한 학교 개방을 지원하는 시설로의 활용을 계획한다.

현재 이러한 사례들은 향후 여러 지역에서도 조사될 것이며, 보다 적절한 유휴교실의 활용방안 및 적정 시설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학교내 유휴교실의 활용과 지역사회시설로 전환하여 개방 활용시 관리 및 운영, 재정 등의 확충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1. 餘裕教室의 轉用, 學校教育以外의 施設의 轉用, 文部省, 日本, 1999.
2. 교육부, 신교육과정에 대응하는 학교시설 모형 연구, 1997. 12.
3. 김승근, 정진주, 이동영, 최효승, 농촌지역 초등학교 유휴교실 이용실태 조사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999. 제 1권 3호
4. 김승근, 최효승, 초중등학교 통합운영에 따른 교육시설 이용시설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9. 제 15권 4호 (통권 26호)
5. 김승근, 정진주, 최효승, 도심 초등학교 유휴시설 활용실태 조사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8. 제 14권 9호(통권 119호)
6. 정관영, 최효승, 농촌폐교시설 이용실태조사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 3권 2호. 1996. 9.
7. 조영진, 정주성, 오양기, 현대와 초등학교의 공간구성의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 14권 5호(통권 115호)
8. 김승제, 최병관, 새로운 국민학교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5. 제 11권 4호